



◇ 부처님마을 가족들은 84년부터 경주 일원에서 해맞이 법회를 동행하고 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설거하는 해맞이 법회는 물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동참이 늘어 해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석굴암·칠불암·골굴암·감은사지·대왕암일대서

# 새해 소망 발원 '해맞이 법회'

해맞이법회를 통해 새해아침을 맞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해맞이 법회는 신년 첫날 아침,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의 소망을 발원하는 법회로 경주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경주는 해마다 세모의 마지막 날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들은 지역 사찰에서 기도와 정진으로 한해의 마지막막을 보낸다.

이 해를 알리는 석굴암 불일대 중의 다종식을 시작으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예불과 정근을 한다. 새벽 5시경,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향해 독경과 정진으로 원을 세운다.

해맞이 법회로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는 경주남산의 석굴암을 비롯 칠불암, 골굴암 등의 사찰과 감은사지, 대왕암일대 바닷가.

해맞이 법회는 경주 부처님마을(촌장 도문스님)이 84년부터 처음 실시했다. 전국의 부처님마을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

다. 이 법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어 지금은 사찰별, 신행단체별로 법회를 주관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마을은 금년에도 석굴암 타종과 함께 칠불암에서 해맞이 법회를 동행한다. 삼귀의, 반야심경독송, 발원문낭독,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는 부처님마을 법회는 3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강 향림사(주지 법명)도 회를 소개한다. 서울에서도 소림정사(주지 지형)가 석굴암 해맞이법회에 5년째 참석하고 있다. 소림정사의 해맞이법회는 서울지역 불자들이 불교성지 경주남산에서 새해 발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데 돌아오는길에 감포에서 방생법회도 갖는다.

또한 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은 오는 31일 상원사 월정사를 참배하고 강릉 경포대에서 해맞이와 함께 '통일기행'을 동행한다. 두레문화기행의 신년기원제는 6번째로 돌아오는 길에 신복사지, 굴산사지, 굴산사

지동 사지도 참배한다. 이밖에 설악산 봉정암, 상원사 중대, 여천 향일암 등 기도처에도 새해아침에는 신년소망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부처님마을(0561-43-3285), 향림사(0561-761-2593), 석굴암(0561-746-9933), 골굴암(0661-749-1272), 두레 문화기행(02-712-5812), 소림정사(02-511-6210)

이어 새날을 알리는 석굴암 불일대 중의 다종식을 시작으로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예불과 정근을 한다. 새벽 5시경,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향해 독경과 정진으로 원을 세운다.

해맞이 법회로 각광을 받는 지역으로는 경주남산의 석굴암을 비롯 칠불암, 골굴암 등의 사찰과 감은사지, 대왕암일대 바닷가.

해맞이 법회는 경주 부처님마을(촌장 도문스님)이 84년부터 처음 실시했다. 전국의 부처님마을 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

다. 이 법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어 지금은 사찰별, 신행단체별로 법회를 주관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부처님마을은 금년에도 석굴암 타종과 함께 칠불암에서 해맞이 법회를 동행한다. 삼귀의, 반야심경독송, 발원문낭독,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는 부처님마을 법회는 3백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강 향림사(주지 법명)도 회를 소개한다. 서울에서도 소림정사(주지 지형)가 석굴암 해맞이법회에 5년째 참석하고 있다. 소림정사의 해맞이법회는 서울지역 불자들이 불교성지 경주남산에서 새해 발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데 돌아오는길에 감포에서 방생법회도 갖는다.

### 만 화 \* 성념의 장 \* 그 어떤 속박에서도 초월하라

# 법구경

이 향 원

아니! 이거 웬 봉투? 부장님이 설명 하실 거예요. 에... 또 지금 똥똥 봉투는 사장님이 주신 특별 격려금입니다. 옛날 같으면 일급, 보너스 봉투를 식구들 앞에 내왔을 때 고마워하는 식구들의 표정에서

가장 권위를 그때나마 느낄 수 있었으나 요즘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송금 되어버려서 도리어 용돈 타 쓰기에 마누라 눈치 보기도 급급하다는걸 사장님께서 어엿비 여기시어 한해를 마감하는 오늘! 조그만 선물이라도 직접 사 들고 들어가는 가장으로써의 체면 유지비로 주신것이니 유용하게 쓰길 바랄. 이상!

왜들 안가고 거기 모여있어? 아! 공대리님 거창하게 가장 권위가 어찌구 하면서 10만원이 됩니까? 애들 게임기 하나 사준다 해도 십수만원인데... 차라리 주지나 말지 물어보게 요즘 돈 10만원이 어디 든 입니까?

취도 불만 아니 안줬음 어찌될뻔 했어 차라리 안줬으면 아무 생각이나 없조 그게 약이다. 아예 모두 모아 망년회나 또 한번 하자 그대리님도 합세 하시죠. 갖고있는 봉투 모두 내게 맡겨 모든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줄테니 무슨 묘수라도 생각해 냈나요?

10만원을 일배쯤 뒤킨다는 말은 다면 모두 취봐 좋아! 공대리님은 신뢰 할수있는 분이니 여기에도 내것도... 자, 같이가세

그들은 뜻이 있는 곳에 쓰일 것이니 돈 갖고 고민할 일이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집에 가서 얘기해봐 온 식구들이 우리러 볼테니 모든게 해결 된 셈이잖아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끊어오르는 화를 삭이는 이를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은 고삐만을 쥐고 있을 뿐이다

## 불자학생수 해마다 감소

김형중 교법사, 고입선발 입학원서 종교 분포조사

사 입학원서에 나타난 종교 분포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89년 당시 불교에 크게 뒤졌던 천주교 학생수가 오히려 불교를 앞지르고, 개신교의 경우 학생의 절반가량을 확보할만큼 급증세를 보인 점이 주목할만 하다.

또한 최근 3년간의 표본조사 결과 역시 위 결과와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4, 95, 96년도 각 1백50, 2백, 3백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조사를 보면 불교

게 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같은 결과는 조사대상 이 학생에게 국한됐다의 점 과 특정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 표본수가 작다는 점등 여러가지 한계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자 학생수가 확실히 줄고 있다는 중립학교와 일반학교 교사들의 지적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는 사실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

# 대원불교대학

##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통신과정 00명  
연구과정 00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 교 과 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완전강독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교사사	불교미술	천 태 론
연구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1.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2. 소정의 법사교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3.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